Maison marie claire

2025 APRIL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실내 건축가 그레그 나탈이
리노베이션한 런던 집

SPACE
TTOS 다이얼로그 갤러리

TREND
2025 패브릭 이슈

INTERVIEW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페르넷 페리앙
톰 딕슨

ITEM
SOFA PARADISE

FESTIVAL
연희동 커피 페스티벌

BEYOND SPA & WELLNESS

신체와 감각을 깨우고 일상을 재정비하는 쉼이 있는 호텔 5

정가 9,000원
ISSN 1227-8467

April

Contents

20 **EDITOR'S LETTER**

22 **UP-TO-DATE**

32 **SHOPPING**
THE BRUTALIST

34 **SHOPPING**
CAMPING SEASON

36 **ART**
불타지 않는 미술관

38 **GLOBAL/NEW YORK**
역사가 무대가 된 갤러리

40 **GLOBAL/PARIS**
메르시의 새로운 시작

42 **HOUSE OF TWO FACES**
글래머러스함과 정제된 모더니즘이 돋보이는 실내 건축가
그레그 나탈이 설계한 집

54 **NOWHERE ELSE**
루이 모르강 스튜디오가 디자인한, 집으로 변모한 파리의 사무실

62 **시간을 품은 건축**
비엔나 분리파의 세련된 감각, 바우하우스의 균형, 일본의 미학이
녹아든 라 빌라 N 하우스

70 **ELEVATED HARMONY**
컬렉터블 디자인과 기능적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맨해튼 펜트하우스

77 **BEYOND SPA & WELLNESS**
각기 다른 접근 방식으로 웰니스의 가치를 실현하는
뷰티 브랜드의 호텔 5곳

Maison marie claire

광고마케팅부
Sales & Marketing Dept.

MCM광고마케팅팀
팀장 Director
배영한 Younghan Bae
nahani@mckorea.com

사원 Staff
안현구 Hyungu Ahn
a_hyungu@mckorea.com

경영기획본부
Administration Dept.

이사 Executive Director
장훈도 Hoondo Chang

기획관리팀
팀장 Director
이형수 Hyoungsoo Lee

차장 Deputy Manager
문제형 Jehyeong Mun

대리 Assistant Manager
안세연 Seyeon Ahn

사원 Staff
권나영 Nayoung Kwon

총무팀
팀장 Director
황지현 Jihyun Hwang

차장 Deputy Manager
김양래 Yangrae Kim

과장 Manager
우진호 Jinho Woo

대리 Assistant Manager
구본희 Bonhee Gu

유통관리팀
팀장 Director
고선규 Seonkyu Ko

차장 Deputy Manager
백규항 Gyuhang Baek

대리 Assistant Manager
우재승 Jaeseung Woo

사원 Staff
함예지 Yeji Ham

이사 Executive Director
신소희 Sohhee Shin
이소영 Soyoung Lee
장 드 부아데프르 Jean de Boisdeffre
아르노 드 콩타드 Arnaud de Contades
손기연 Keeyeun Sohn
펠릭스 드로사르 Félix Droissart

감사 Auditor
이주영 Jooyoung Yi

MARIE CLAIRE INTERNATIONAL

Executive Director
Jean De Boisdeffre

International Deputy & Finance Director
Félix Droissart

International Brand Director
Nicia Rodwell

Chief Content Officer
Galia Loupan

Chief Digital Officer
David Jullien

International Fashion & Beauty Chief Editor
Florence Deladrière

Senior International Brand Manager
Celine Hananel

International Editorial Coordinator
Marie Bazin

www.maisonkorea.com

April

Editor's Letter

요즘 '저속노화'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고,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얼마 전, 어린 시절 자주 흥얼거렸던 가요인 '공부합시다'를 부른 가수 윤시내를 TV에서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올해로 70대에 접어든 그녀는 여전히 80년대 무대 위에서 보던 모습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가 가진 독특한 분위기와 아우라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번쯤 '어떻게 나이를 들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네스 펠트로, 줄리아 로버츠, 줄리안 무어 같은 배우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지나친 성형이나 인위적인 방법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이 들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죠.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통해 더 멋진 모습으로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요즘 호스피탈리티 Hospitality 트렌드는 단순히 숙박 공간을 넘어, 웰빙과 힐링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이제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Beyond Spa&Wellness'를 주제로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스파를 갖춘 호텔을 소개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수잔 카프만, 남프랑스의 록시땅과 꼬달리, 이탈리아 로마의 불가리, 두바이의 아르마니 호텔을 소개합니다. 이 호텔들은 럭셔리함을 넘어 진정한 웰니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연친화적인 철학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스파 공간, 균형 잡힌 영양과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그리고 여행과 휴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까지. 이번 기사를 통해 여행과 휴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보세요. 시간과 함께 나아가는 법에 대한 작은 힌트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을 찾은 반가운 디자이너들의 인터뷰도 놓치지 마세요. 9년 만에 한국을 찾은 영국 디자이너 톰 딕슨과 20세기 모더니즘 디자인의 개척자 샬롯 페리앙의 딸인 페르넷 페리앙, 그리고 자연과 빈티지 일러스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아트 프린팅 브랜드 헨리크 딥달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디자인이 지닌 힘과 창작자들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날 4월 4~ 6일까지. 연희동에선 특별한 커피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칼럼니스트 심재범 작가가 기획한 페어인데 <메종>이 미디어 스폰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커피 페스티벌에서는 매뉴팩트, 디폴트벨류, 커피가게동경 등 8곳의 스페셜티 커피숍과 디저트숍이 참여해 다채로운 커피 맛과 향을 선보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이라면 놓칠 수 없는 이벤트! 각 공간에서 준비한 커피와 프로그램을 즐기며, 연희동의 감성을 한껏 느껴보세요.

메종 마리 끌레르 한국판
편집장 박명주

남프랑스에 위치한 뷰티 브랜드 꼬달리 호텔의 수영장.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로모비치가 디자인한 의자.

샹들리에 '시즌스 Seasons'(야드로 Lladro), 벽난로 위 작품은 아냐 페스체 Anya Pesce의 작품 (엠 컨템퍼러리 갤러리 M Contemporary Gallery), 사이드 테이블 '벨 Bell'(클라시콘 ClassiCon)의 상판 등 거실에는 다양한 톤의 금색이 있다. 카나페 '오드리 Audrey'는 갈로티&라디체 Gallotti&Radice. 낮은 테이블 '클라우드 Cloud'는 비어메이커스 Veermakers.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볼은 그레그 나탈의 소품 컬렉션. 암체어 '배트 Bat'는 구비 Gubi, 커버링한 벨벳 '댄디 Dandy'는 루벨리 Rubelli. 벽등 '타셀 Tassel'은 애퍼레이터스 Apparatus. 태피스트리 '맬러카이트 Malachite'는 그레그 나탈 디자인, 디자이너 러그스 Designer Rugs.

House of Two Faces

아치형 입구가 현관에 깊이감을 준다. 바닥 타일 '프레스토 Presto'는 그레그 나탈 디자인, 테라노바 TeraNova. 유리 펜던트 조명 '노베첸토 Novecento'는 비스토시 Vistosi.

로라의 글래머러스한 취향과 롭의 정제된 모더니즘을 조화시키려는 실내 건축가 그레그 나탈의 신성한 도전. 그는 두 사람의 취향을 잘 조합해서 진부하지 않은 런던 스타일을 구성했다. 두 얼굴을 가진 집으로.

EDITOR 이안 필립스 Ian Phillips **PHOTOGRAPHER** 스테판 줄리어드 Stephan Julliard

메탈릭한 톤이 지배하는 현관에는 '크로마 컷 6 Chroma Cut 6'(캐도건 갤러리 Cadogan Gallery)를 걸어 장식했다. 뷔페장 '첼시 캐비닛 Chelsea Cabinet'은 알레시오 바산 Alessio Bassan 디자인, 카텔란 이탈리아 Cattelan Italia. 샹들리에는 70년대의 무라노 유리. 꽃병과 잔은 그레그 나탈.

오른쪽 페이지 컬러가 시선을 사로잡는 다이닝 룸. 그레그 나탈이 디자이너 러그스를 위해 디자인한 태피스트리 '바퍼 Vapour', '론챔프 Ronchamp'는 박스터 Baxter, 세바스티안 헤르크너 Sebastian Herkner가 디자인한 회전 암체어 '마일스 Miles'는 위트만 Wittmann.
카나페 '클라우드 Cloud'는 마시모 카스타냐 Massimo Castagna 디자인, 갈로티&라디체.
의자 '두뎃 Dudet'은 카시나 Cassina. 샹들리에 '메시매틱스 Meshmatics'는 모오이 Moooi.
브라질 아티스트 테오 핀토 Theo Pinto의 그림은 캐도건 갤러리.

로라와 롭 부부가 런던 집을 찾기 시작한 이유는 딸 렐리아, 릴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청소년이 된 두 딸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자 부부도 그곳으로 같이 오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미 시드니, 홍콩, 싱가포르에서 살아본 적이 있고, 이사에도 익숙하기에 이런 변화가 힘들지 않았다. 더군다나 첼시 Chelsea에서 자란 롭에게는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일이기도 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 와서 새 집을 찾았어요." 그들이 찾은 네오 조지언 양식의 집은 최근에 리노베이션을 거쳤는데, 가족의 기대와도 잘 맞았다. 하지만 라이프스타일과는 맞지 않았다. 다운튼 애비 Downton Abbey 스타일의 집에는, 직원들이 일하는 주방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의 실내 건축가 그레그 나탈은 공간을 재구성해서 멀티미디어 룸, 서재, 게스트 룸, 욕실, 와인저장실을 만들고, 주방을 1층으로 옮겼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옛날 느낌을 주기 위해 몰딩을 다시 만들었다. 로라는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롭은 모던하면서 절제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건축가는 이 둘 사이를 조화롭게 오가야 했다. 일렬로 이어지는 방마다 다른 스타일을 적용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응접실에는 유기적인 가구와 핑크, 라일락, 연녹색 등 할리우드 색조를 메인으로 사용했고, 부부 침실 천장에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몰딩을 과감하게 설치했다. 반면에 현관과 복도는 정제된 스타일로, 미니멀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하 전체는 롭의 와인 컬렉션을 연상시키는 보르도 컬러로 칠하고 직선의 가구들을 놓았다. 두 세계가 공존하는 이 집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는 기분에 따라 이곳저곳을 오간다.

왼쪽 "아치 형태의 문이 연속되며 이탈리아 감성을 줍니다." 테이블은 박스터. 의자는 카시나. 샹들리에는 모오이. 태피스트리는 디자이너 러그스.
가운데 우아한 작은 거실. 갈로티&라디체의 카나페 옆에 두 개의 사이드 테이블 '라토 Lato'(루카 니체토 Luca Nichetto 디자인, 앤트래디션 &Tradition)을 놓았다.
한 쌍의 회전 암체어 '마일스'는 세바스티안 헤르크너 디자인, 위트만. 낮은 테이블 '바스코 Vasco'는 줄리언 치체스터 Julian Chichester. 빈티지 샹들리에는 마제가 Mazzega.

오른쪽 원래 지하에 있던 주방을 1층의 스테인드글라스 아래로 옮겼다. 아일랜드와 수납장은 벤자민 무어 Benjamin Moore의 '스팀 Steam' 컬러로 칠했다. 천장등은 마이클 아나스타시아드 Michael Anastassiades 디자인, 플로스 Flos. 바 타부레 '430'은 베르너 팬톤 Verner Panton 디자인, 베르판 Verpan.

그레그 나탈이 디자인한 세면대는 상판을 핑크색 대리석으로 만들고 벤자민 무어의 '세이지브러시 Sagebrush'로 칠했다. 거울은 맞춤 제작. 욕조 '밀라조 Milazzo'는 그레드 나탈 디자인, 미크 Meek. 수전 '세일링 Sailing'은 판티니 Fantini. 타부레 '스타파 Staffa'는 펌 리빙 Ferm Living. 천장등 '노베첸토'는 비스토시. 벽을 마감한 타일 '스카르파 Scarpa'는 그레그 나탈 디자인, 테라노바.

부부 침실에는 곡선을 특히 많이 사용했다. 침대 '유키 Yuki'는 마시모 카스타냐 디자인, 갈로티&라디체. 사이드 테이블 '온다 Onda'는 폴리폼 Poliform. 조명 'PH 3/2'는 루이스 폴센 Louis Poulsen. 암체어 '도트 Dot'는 라파엘 나보 Raphael Navot 디자인, 로슈 보부아 Roche Bobois. 화장대 '에덴-록 Eden-Rock'은 사샤 라킥 Sacha Lakic 디자인, 로슈 보부아. 푸프 '파스티유 Pastille'는 스튜디오페페 Studiopepe 디자인, 타치니 Tacchini.

톤 변화를 준 지하는 룹의 왕국. 벽에는 벤자민 무어의 '루비 더스크 Ruby Dusk'를 칠했다. 카나페 '카사 Casa'(카메리치 Camerich) 위에 건 그림은 아티스트 누리아 마리아 Nuria Maria의 작품, 캐도건 갤러리. 암체어 '펌킨 Pumpkin'은 피에르 폴랭 Pierre Paulin 디자인, 리네 로제 Ligne Roset, 커버링한 패브릭 '젠틀 2 Gentle 2'는 크바드랏 Kvadrat. 조명 '아톨로 Attolo'는 비코 마지스트레티 Vico Magistretti 디자인, 올루체 Oluce. 사이드 테이블 '벨'은 세바스티안 헤르크너 디자인, 클라시콘. 둥근 테이블 '스팅 Sting'은 카텔란 이탈리아. 태피스트리 '무와레이 Moire'는 그레그 나탈 디자인, 디자이너 러그스.

오른쪽 페이지 독특한 남성성이 돋보이는 욕실. 세면대는 대리석으로 맞춤 제작. 수전 '세일링'은 판티니. 거울은 맞춤 제작. 벽등은 스퀘어 인 서클 Square in Circle. 바닥의 대리석 타일은 그레그 나탈 디자인, 테라노바.

책장은 미국산 떡갈나무로 맞춤 제작. 암체어 '사리넨 컨퍼런스 Saarinen Conference'는 놀 Knoll. 조명 '그라스호파 Grashoppa'는 구비. 샹들리에는 벼룩시장에서 구입. 태피스트리 '피즈 Fizz'는 그레그 나탈 디자인, 디자이너 러그스. 벽지 '비스타 메디테라니아 Vista Mediterranea'는 콜&선 Cole&Son. 벽에 건 작품은 캐도건 갤러리.

etc.

EDITOR 샤를로트 바이유 Charlotte Bailly

스틸과 무라노 유리로 된 샹들리에 '폰테인 Fontaine'. 베로네즈 Veronese. 지름 80×높이 100cm. 가격 문의.

폴리우레탄 마감의 MDF 코모드 '뉴쿨 Newcool'. 라 르두트 앵테리외르 La Redoute Interieurs. 가로 100×깊이 39.6×높이 81.8cm. 539유로.

페인트 'CR4182-3 Rouge massai'. 톨랑 Tollens. 1L에 20유로부터.

산소를 제거한 황동 장식 패널 '오너멘텀 벨라 Ornamentum Vela'. 마르티넬리 베네치아 Martinelli Venezia 디자인, 데 카스텔리 De Castelli. 42×42cm. 570유로.

패브릭 '비다르 Vidar'를 커버링한 암체어 '로 Ro'. 떡갈나무 원목 다리. 하이메 야욘 Jaime Hayon 디자인. 프리츠 한센. 가로 80×깊이 97×높이 113cm. 3399유로.

페인트 'CR4172-5 Degas'. 톨랑. 1L에 20유로부터.

나무 다리와 벨벳 패브릭으로 된 바 암체어 '주주 Zouzou'. 알렉시아 르뢰 Alexia Leleu 디자인. 메종 르뢰 Maison Leleu. 가로 55×깊이 52.5×높이 116.5cm. 5200유로부터.

낮은 테이블 '코파틴 Kopatine'. 상판은 자단 베니어를 입힌 MDF, 다리는 자단 베니어를 입힌 포플러 나무. 가로 150×깊이 72×높이 36cm. AMPM. 1079유로.

손으로 짠 양모 태피스트리 '스트레이트 Strate'. 코코 헬레인 Coco Hellein 디자인. 로슈 보부아. 200×300cm. 2720유로.